



THE SOUND MAKER

예거 르쿨트르의 역사는 평화롭고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지닌 발레 드 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 사이를 오가는 바람과 새들의 노랫소리, 산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두툼한 담요를 포개어 놓은 듯 새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겨울의 침묵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길고 척박한 겨울이 되면 계곡에서 들려오는 특별한 두 가지 소리가 깊이를 더해줍니다. 흑한이 덮친 숲 속의 가문비나무가 성장 속도를 늦추고, 수세기 동안 현악기 제작자들을 매료시킨 울림이 탁월한 목재로 자라나는 동안 발레 드 주의 초기 워치메이커들은 더욱 정교한 차임 시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실내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년, 예거 르쿨트르는 “THE SOUND MAKER”를 기념하며 발레 드 주와 위대한 차임 시계 유산에 경의를 표하고 150 년간 쌓아온 전문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입니다.

시간이 들려주는 사운드

600 여 년 전에 이미 시간의 흐름은 사운드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마을의 교회나 시청에 설치된 탑시계의 차임 소리에 기대어 일상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실제로 시계(clock)는 종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클로슈(cloche, 실제 기원은 라틴어 clocca)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계를 소형화한 미닛 리피터는 전등이 발명되기 전에 개발되어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대단하지만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초소형 차임 시계는 혁신을 향한 초기 워치메이커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대변하는 상징을 소유하고자 했던 부유한 고객의 열망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창립자인 앙트완 르쿨트르는 워치메이커로서뿐 아니라 구성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절단하여 극도로 작은 크기로 가공하는 기계를 탄생시킨 발명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레 드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사운드를 재현하는 정교한 초소형 차임 시계와 뮤직 박스를 제작하는 생산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워치메이커들에게 있어 시계 컴플리케이션 중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닛 리피터는 단순한 시계의 가치를 넘어서는 소형화된 악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닛 리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월한 음악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70 년 최초의 미닛 리피터를 완성한 이후 200 개 이상의 차임 시계 칼리버를 개발해왔고, 1900 년이 되기 전에 100 개에 달하는 미닛 리피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랑 메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알람 시계부터 극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구현되는 그랑 소네리와 웨스트민스터 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차임 시계를 마스터했습니다. 20 세기 중반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이름으로 리피터와 소네리 시계를 제작하는 한편,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기업에 차임 무브먼트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차임 시계 메커니즘의 구조는 19 세기 초반 이후 전반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예거 르쿨트르는 무브먼트의 기계 효율성을 향상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캐시드럴 공(cathedral gongs, 1870 년)과 트리플 해머 메커니즘(triple-hammer mechanism, 1880 년)을 탄생시켰으며, 1895 년에 이르러 무음 타종 거버너(silent strike governor)를 발명하고 기존의 레버 타입 레귤레이터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변 잡음을 없앴습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차임 시계에 사용되고 있는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1900 년에는 최초의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를 완성했습니다.

20 세기 중반 사회가 급변하면서 도시 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적절한 실용적인 기능이 탑재된 시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수준 높은 차임 메커니즘 노하우를 통해 알람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메모박스 칼리버에는 리피터 시계의 해머-공 메커니즘이 사용되었지만, 타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섬세한 종소리와 같은 차임이 아닌 음높이가 같은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특유의 ‘스쿨 벨(school bell)’ 사운드를 재현하는 메모복스는 1950 년에 출시된 이후 70 년간 알람 시계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 주차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과 같은 추가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이 도입되었고, 1959 년에는 알람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다이버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2000 년 이후 메모복스는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 마스터 컴프레서 모델, 다이버 시계를 기념하는 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결합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랑 메종은 위대한 워치메이킹 유산인 미닛 리피터를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음향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시계 제작 분야의 소중한 전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특허 받은 ‘크리스탈 공(2005년 도입)’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접합되어 있으며, 뛰어난 음향 전달 성능을 지닌 합성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되었습니다. 2년 후 도입된 장방형 공의 평평한 면은 해머가 타격될 때 더욱 균일하고 강력한 타종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과 연결된 트레뷰쉐 해머(2009년 도입)는 중세의 평형추 투석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기계 원리를 이용하여 해머 타격의 속도와 힘을 향상했습니다. 울트라 싰 히브리드 메카니카 11(2014년 출시)에 도입된 무음 구간 단축 기능은 미닛 리피터가 15분 단위로 타종을 하지 않는 구간(1분-14분)의 시간에 대기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019년, 예거 르쿨트르는 칼리버 950에 새로운 형태의 ‘듀플렉스(duplex)’ 공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공은 코일에 평평하게 놓이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위쪽으로 휘어지기 전까지 한 바퀴 정도 회전한 다음 갈라져 무브먼트의 상단을 따라 두 개의 반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음향 공진을 키워 더욱 아름다운 음향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은 음향을 재현하는 메커니즘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리피터와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데 도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퍼페추얼 캘린더, 다축 자이로투르비옹 및 웨스트민스터 차임 메커니즘(칼리버 184)을 통합하였고, 퍼페추얼 캘린더, 새로운 듀플렉스 공 시스템 및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칼리버 950)을 결합하였으며, 올해 출시한 차세대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그랑 컴플리케이션(칼리버 945)에 항성시 캘린더와 오비탈 플라잉 투르비옹을 도입했습니다.

150여 년간 차임 시계는 기타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전문 기술을 보완해주는 예거 르쿨트르의 가장 핵심 시계였습니다. 올해 공개된 차세대 스트라이킹 메커니즘 시계를 통해 매뉴팩처의 위대한 유산을 기리고 그랑 메종을 이끈 혁신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www.jaeger-lecoultre.com